



미 증시,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소폭 약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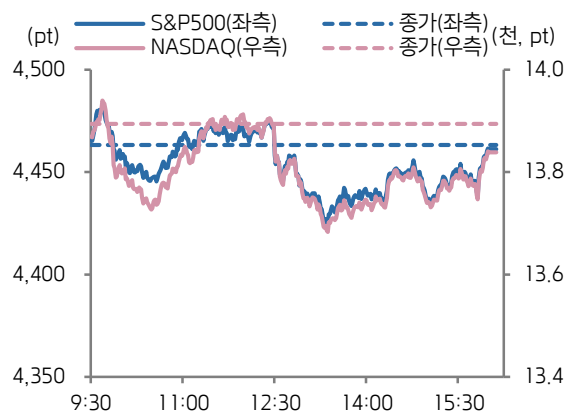
21 일 (월)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NABE 연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차익 실현 압력에 부담을 보이며 소폭 하락 마감. 파월 의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진행된 NABE 컨퍼런스에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미국채 10 년물 금리가 17bp 급등하며 장중 2.3% 상회. 파월 발언에 5 월 FOMC 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최근에 급등세를 보인 성장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임. S&P500 지수는 +0.1% 출발 이후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이며 장중 -0.9~+0.4% 사이에서 등락하다 결국 약보합권에서 마감(다우 -0.58%, S&P500 -0.04%, 나스닥 -0.4%, 러셀 2000 -0.97%)

파월은 연준은 이날 NABE 에서 중립적인 통화정책 수준을 향해 더욱 "신속하게(expeditiously)"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필요하다면 올해 남아있는 FOMC 에서 25bp 보다 큰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열어둠. 대차대조표 축소(QT)에 대해서는 5 월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뉴스플로우도 증시에 부담이었음.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리우폴에서 철수하라는 러시아의 최후통첩을 반쪽적으로 거부했고, 이에 따라 러시아군 포위 공세는 더욱 격화됨.

업종별로 에너지(+3.8%), 소재(+0.9%), 유틸리티(+0.7%) 등이 상승한 반면, 경기소비재(-0.8%), 통신(-0.7%), 부동산(-0.5%) 등은 하락. 에너지는 유가 급등에 힘입어 급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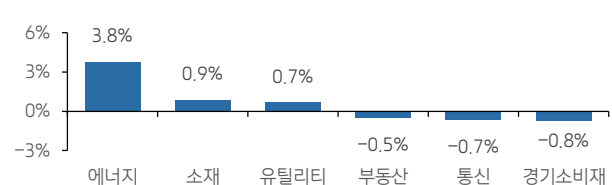
종목별로 대형 기술주들은 테슬라(+1.7%), 엔비디아(+1.1%) 등은 상승, 메타(-2.3%), 마이크로소프트(-0.4%)는 하락하는 등 차별화된 흐름을 보임. 메타는 러시아 법원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극단주의적 활동이라 규정하며 활동 중지 판결을 내린 점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 보잉(-3.6%)은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이슈에 하락, 홈디포(-2.3%)와 나이키(-0.8%)는 최근 강한 반등세에 대한 차익 실현 압력에 하락. 버크셔해서웨이(+2.1%)는 보험사 앨러게니(+24.8%)를 116 억 달러에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 상승.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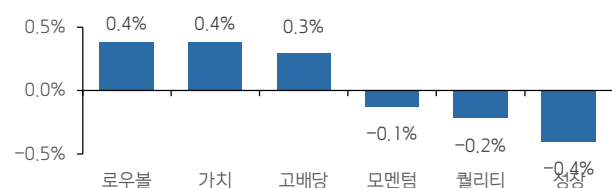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461.18	-0.04%	USD/KRW	1,216.47	+0.74%
NASDAQ	13,838.46	-0.40%	달러 지수	98.48	+0.26%
다우	34,552.99	-0.58%	EUR/USD	1.10	+0%
VIX	23.53	-1.42%	USD/CNH	6.37	+0%
러셀 2000	2,065.94	-0.97%	USD/JPY	119.47	+0%
필라. 반도체	3,423.24	-0.26%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371.56	-0.76%	국고채 3년	2.270	+4.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738	+0.7bp
Eurostoxx50	3,881.80	-0.53%	미국 국채 2년	2.115	+17.9bp
MSCI 전세계 지수	701.46	+0.89%	미국 국채 10년	2.290	+14bp
MSCI DM 지수	3,010.59	+0.98%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122.98	+0.18%	WTI	112.12	+7.09%
MSCI 한국 ETF	70.02	-2.07%	금	1934.8	+0.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0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5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1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20.0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파월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
2. 국제유가 재 급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민감도가 높은 관련 업종들의 주가 변화
3.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국내 바이오업체 블록딜 수요예측이 관련 업종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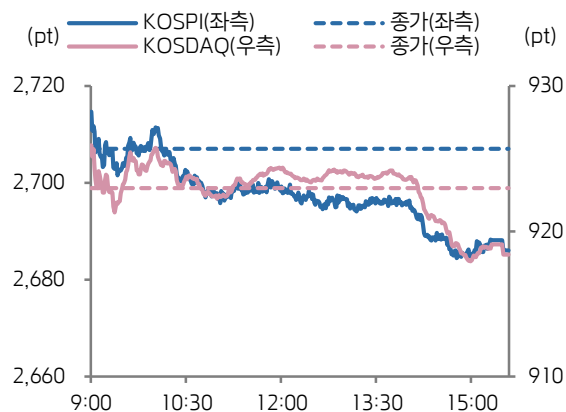
전미실물경제협회 컨퍼런스에서 파월의장의 발언은 매파적이었으며, 해당 발언이 종료된 이후 5 월 FOMC 에서의 50bp 인상 확률은 43%대에서 59%대로 급등한 상황. 파월 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가 전망 악화로 인플레이션 파이팅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가운데, 필요 시에는 중립금리(예상 2.5%) 수준 이상으로 긴축할 수 있다면서 5 월 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에서도 공격적인 긴축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 더 나아가, 다가오는 회의에서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은 5 월 혹은 6 월 FOMC 에서도 이를 단행할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

전반적으로 매파 성향이 짙은 발언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사실상 3 월 FOMC 에서 언급했던 내용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시장 역시 상당부분 반영해오고 있었다는 점이 21 일 장 후반 미 증시 낙폭 축소 배경이었던 것으로 판단. 또한 우크라이나 발 오일 쇼크 및 스태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경제 펀더멘털, 자국 내 원유 수급 상황을 고려 시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는 점도 시장을 재차 안도 시켰던 부분.

물론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시행 우려로 유가(WTI +7.6%)가 재차 급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장단기 금리차(10 년-2 년물)은 20bp 내로 축소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불안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 다만, 1) 스태그플레이션 조건인 실업률 급등, 실물 수요 감소 등이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2) 10 년물과 2 년 이하의 단기물이 더 좋은 신호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처럼, 10 년물과 3 년물의 금리 차는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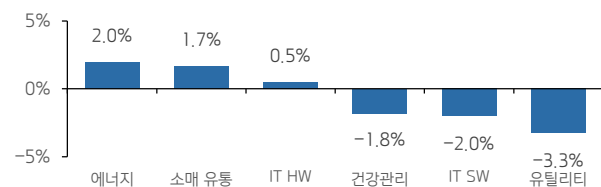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금일 국내 증시는 파월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소화하면서 제한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3 월 FOMC 종료 이후 매크로 민감도가 낮아지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3 월 FOMC 의사록, 3 월 소비자 물가, 1 분기 실적시즌 등 확인해야 할 요인들이 4 월부터 대기하고 있는 상황.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전반적인 지수 상단은 제한될 전망. 금일에도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대형 바이오 업체 블록딜 수요예측 소식, 국제 유가 재 상승 등과 같은 개별 재료에 따라 업종 및 종목간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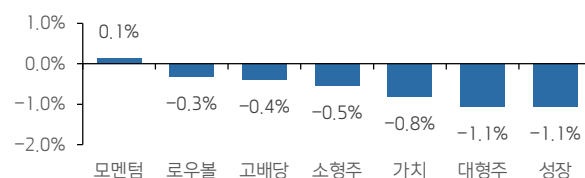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취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